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의 「부재지주(不在地主)」와 이기영의 「고향」 비교연구*

황 봉 모**

kubojun@hanmail.net

〈 目 次 〉

- | | |
|---------------------|---------------------------|
| 1. 서론 | 4. 「부재지주」와 「고향」의 동일점과 차이점 |
| 2. 고바야시 다키지의 「부재지주」 | 5. 결론 |
| 3. 이기영의 「고향」 | |

Key word : 고바야시 다키지(Takiji Kobayashi), 「부재지주」(“absent landlord”), 이기영 (Lee Ki-young), 「고향」(hometown), 농촌소설(a rural novel).

1. 서론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 1903-1933)는 일본프롤레타리아문학의 대표적 작가이다. 그는 「1928년 3월 15일」 「계 잡이 공선(蟹工船)」 「당 활동가」를 발표하며, 일본프롤레타리아 문학뿐만이 아니고, 일본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인정받았다. 한편 이기영(1895-1984)은 한국프롤레타리아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이기영의 「고향」은 한국근대문학사에서 최고의 리얼리즘 작품의 하나로서 알려져 있다. 이기영은 「고향」을 씀으로써 한국프롤레타리아문학을 대표하는 작가가 되었다.

고바야시 다키지의 「부재지주(不在地主)」는 일본농민문학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기영의 「고향」은 한국농민문학의 대표작이다. 두 작품을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3097)

** 전북대학교 일본학과 강사, 일본근현대문학

비교 연구하는 것은 흥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고바야시 다키지의 『부재지주』와 이기영의 『고향』을 비교분석해 보기로 한다. 두 작품은 각각 일본과 한국의 농촌의 현실을 묘사한 농촌소설이다. 본고에서는 고바야시 다키지의 『부재지주』와 이기영의 『고향』을 비교 분석하여, 두 작품의 문학적 의미와 당시 양국 농촌의 현실을 살펴보고 싶다.

2. 고바야시 다키지의 『부재지주』

고바야시 다키지는 일본프로레타리아문학의 대표 작가이다. 그는 일본프로레타리아문학의 이론과 창작 양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최고의 작가로 성장했다.

고바야시 다키지는 일본프로레타리아문학 진영 최고의 이론가인 구라하라 고레히토(蔵原惟人)의 이론을 받아들여 작품을 썼다. 그의 데뷔작인 『1928년 3월 15일』(『전기』1928년 11월, 12월)은 구라하라 고레히토의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에의 길』(『전기』1928년 5월)에 의거하여 쓴 작품이다. 다키지는 『1928년 3월 15일』을 통하여 일본프로레타리아문학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고바야시 다키지의 『부재지주』는 『방설림(防雪林)』을 개작(改作)한 작품으로, 『중앙공론(中央公論)』 1929년 11월호에 게재되었다.

다키지의 『방설림』은 그의 사후에 발견되었지만, 집필기록에 의하면 1928년 4월 26일에 완성된 작품이고, 『부재지주』를 완성한 날짜는 1929년 9월 29일이다. 두 작품은 1년 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두 작품의 차이는 현격하다. 그 1년 반 동안 다키지의 농촌에 대한 인식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다키지에게 이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일찍이 없던 새로운 경험을 한 시간이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1928년 3월 15일』과 『계집이 공선』을 발표하면서 일약 일본프로레타리아 문학의 대표작가로 도약했던 것이다.

다키지는 9월 29일 『부재지주』가 완성되자, 『중앙공론』의 편집자인 아메미야(雨宮庸藏)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작품의 작품의도에 대해서, 무엇보다 ‘자

본주의가 지배적인 상태에 있는 농촌'을 그렸다고 말한다. 근대에 들어와 일본의 농촌은 이미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자본주의의 문제가 되어 있었다. 지주제도 또 그러한 점에서 일본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기구가 되어 있었다. 일본의 자본주의는 지주제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다키지가 『부재지주』에서 이러한 지배체제의 동향을 예리하게 폭로함과 함께, ‘지주와 자본가’ ‘군대와 농민’의 문제에게까지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 어느 농민문학에도 없었던 새로운 문제제기였다.

고바야시 다키지의 농촌소설인 『방설림』 『부재지주』 『늪 귀퉁이 마을(沼尻村)』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의 문학의 괄목할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방설림』에서 지주의 착취에 고민하는 마을사람들이 쟁의를 일으키지만 국가 권력인 경찰에게 막혀서 실패하는 과정을 그렸다. 그리고 『부재지주』에서는 일본최초의 노농(勞農)동맹을 맺어 승리한 이소노(磯野) 농장의 쟁의를 묘사했다.

다키지는 『방설림』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 농민들의 문제를 『부재지주』에서 그 해결책을 마련했다. 『방설림』에서 실패한 농민들의 행동은 『부재지주』에서 성공한다. 두 작품 사이의 간격에서 다키지의 괄목할 만한 성장모습을 볼 수 있다.¹⁾

그러면 여기에서 일본프롤레타리아문학과 일본농민문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구로시마 텐지(黒島傳治)는 1932년 9월 『어린 풀(若草)』(보문관)에 발표한 『농민문학의 발전』이라는 평론에서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농민문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빈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동맹을 맺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 아래 자본가 지주와 싸움으로써 비로소 스스로를 해방하여 간다. 농민문학도 프롤레타리아문학과는 구별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프롤레타리아트에 지도되어 비로소 농민의 계급적 필요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의해 올바른 방향으

1) 고바야시 다키지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황봉모 (2017)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의 『부재지주(不在地主)』 연구』 『일본연구』 한국외대 일본연구소)에 상세히 연구되어 있다.

로 진전해 간다. 그리고 멀지 않아 농민문학은 프롤레타리아문학 안에서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농민문학이 비로소 정당한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고 생각한다.²⁾

일본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의 농민문학연구회 소속의 구로시마 텐지는, 빈농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문학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동맹을 맺고 자본가 지주와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할 때 비로소 “노동자의 지도에 의해 농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해 간다.”고 인식한다. 당시 농민문학연구회에는 구로시마 텐지, 나가노 시게하루(中野重治), 시바타 가즈오(柴田和雄), 쓰보이 시게지(壺井繁治) 등이 속해 있었다.

다키지의 『부재지주』는 구로시마 텐지의 이러한 농민문학의 전형에 해당하는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마을농민들은 오타루노동조합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쟁의를 이끌어간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농민들의 쟁의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3. 이기영의 『고향』

이기영은 한국프롤레타리아문학의 대표적 작가이다. 이기영은 1924년 7월 『오빠의 비밀편지』가 『개벽』지의 단편소설 현상공모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한다. 그 뒤, 그는 『고향』을 발표함으로써 한국프롤레타리아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인정받는다. 이상경은 한국프롤레타리아문학에서 이기영의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기영은 카프의 중심작가로서 카프의 문예정책이 전환되거나 새로운 창작적 지침이 나올 때 누구보다 충실히 그것을 수용하여 작품을 썼고 또 그 작품들은 프로소설사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때로 카프의 문예이론이 새로운

2) 구로시마 텐지(黒島傳治)(2010) 『농민문학의 발전』 『구로시마 텐지 전집 4권』 勉誠出版 pp.143-144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막혀 있을 때 이기영의 소설이 창작의 새로운 경지를 열게 됨으로써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³⁾

일본프롤레타리아문학에서의 고바야시 다키지의 경우와 같이, 이기영은 한국프롤레타리아문학에서 이론과 창작 양면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했다. 이기영의 작품은 때로 이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프롤레타리아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성장한 것이다.

안함광은 고바야시 다키지와 이기영의 작품 활동을 동일한 시각으로 평가한다. 그는 1933년 9월 23-30일에 『조선중앙일보』에 발표한 「최근 문단의 동향」라는 비평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수한 작가에 있어서는 창작이 비평의 앞에 서는 예가 또한 적지 않다. 가까운 예로써 고 소림다희이가 늘 작품을 통하여 전작에 대한 자기비평을 가지는 동시에 한 개의 작품에서 다음 한 개의 작품으로의 생산은 비평가를 앞서서 기민하게도 창작방법의 새로운 길을 부절히 개척하면서 있었다는 사정을 우리들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⁴⁾

여기에서 ‘소림다희이’는 고바야시 다키지를 한국어 한자로 읽은 것이다. 그는 고바야시 다키지에 대해서 “비평가를 앞서서 기민하게도 창작방법의 새로운 길을 부절히 개척하는 작가”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이기영도 그의 경우와 같다고 말한다. 그는 이 비평에서, “이기영의 『서화』는 반드시 이러한 측면에서 논의되지 않을 수 없는 다분의 새로운 요소를 가진 작품이다.”라고 평가한다.

『서화』는 1933년 5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작품으로, 호평을 얻었다. 그러므로 『고향』의 제작에는 『서화』의 영향이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기영은 『서화』의 호평을 바탕으로 『고향』의 구상에 들어갔다고 생각된다.

『고향』은 1933년 11월 15일부터 1934년 9월 21일까지 역시 『조선일보』에

3) 이상경(1994) 『이기영 시대와 문학』 풀빛 p.94

4) 안함광(1933) 「최근 문단의 동향」 『조선중앙일보』

연재된 작품이다. 이기영은 그해 7월 17일에서 8월말까지 고향인 천안 상암리의 성불사라는 절에서 약 40일 간에 걸쳐서 「고향」을 집필했다. 그는 「고향」이라는 소설을 일단 완성한 후, 퇴고를 거쳐 매일 분의 분량을 『조선일보』에 보냈다.⁵⁾

그 뒤 「고향」은 전전(戰前)인 1936년 10월에 한성도서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상권은 10월, 하권은 1937년 1월 발행이었다. 단행본은 검열 때문에 그 내용이 신문연재 판에서 일부 삭제되거나 했다. 또 「고향」은 기시 야마지(貴司山治)가 주재한 일본잡지 『문학안내(文学案内)』에 1937년 1월호에서 4월호까지에 번역 연재되었다.

한국프롤레타리아문학의 최고봉으로 인정받는 이기영의 「고향」은 식민지 현실의 문학적 형상화에 성공한 작품이다. 소설 「고향」의 무대인 원터 마을은 작가의 고향으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고향마을에 살고 있는 실제 인물들이 그 모델이 되어 있다.

그런데 「고향」에는 검열에 의한 삭제 문제와 마지막 부분의 대필 문제가 있다. 이기영은 「작가의 학교는 생활이다」(『문학신문』 1962년 8월 21일-28일)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이렇게 초고를 추고하여 신문에 연재하다가 1934년 여름에 카프 제2차 검거사건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마지막 부분은 추고도 못한 채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특히 원터마을 농민들의 소작쟁의를 지원하는 제사공장 노동자들의 제사공장 파업 장면은 적지 않게 삭제 당하였습니다.⁶⁾

그러면서, 그는 “해방 후에 「고향」이 다시 출판될 때에 그 부분을 보충하라는 일부 동무들의 권고도 있었지만 나는 해방 전 작품의 원형을 그대로 살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기영은 1934년에 일어난 카프 제2차 사건으로 그해 8월 25일에 검거되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기영 대신에 「고향」의 마지막

5) 「고향」과 함께 농촌계몽소설로 알려진 이광수의 「흙」은 1932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되었으며, 심훈의 「상록수」는 1935년 9월부터 역시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

6) 이기영(1962) 「작가의 학교는 생활이다」, 『문학신문』, (이상경(1994) 『이기영 시대와 문학』 풀빛 p.140에서 재인용.)

부분은 김기진에 의해 대필되었다.⁷⁾

김기진(김팔봉)은 「고향」의 대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기영은 그 때 조선일보에 「고향」이라는 장편소설을 쓰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만일 자기가 나보다 먼저 붙잡혀 가게 되거든 「고향」의 원고를 나더러 계속해서 써주는 동시에 신문사에서 주는 원고료를 자기 집에서 찾아가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승낙하였다.⁸⁾

이기영은 가난한 자기 집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감옥에 가면 생활이 곤란한 집 사정을 생각해서, 그는 김기진에게 「고향」의 대필을 부탁했을 것이다. 이 작품이 김기진에 의해 대필된 분량은 『조선일보』연재분 총 252회분에서 35-36회분 정도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작품의 결말 부분으로 「고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고향」의 마지막 부분에서 농민들은 안승학의 가정사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여 쟁의에서 승리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당당한 수단에 의한 승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향」의 마지막 부분이 중도반단 식으로 끝나게 된 데에는 위의 이기영의 말처럼 “원터마을 농민들의 소작쟁의를 지원하는 제사공장 노동자들의 제사공장 파업 장면은 적지 않게 삭제 당했다.”는 이유와 함께 대필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향」은 작품이 연재되면서 당국의 검열로 수정과 삭제를 강요당한다. 또한 「고향」의 가장 중요한 결말 부분이 대필되었다는 것은 작품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고향」이라는 작품의 가치가 삭제와 대필에 의해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고향」의 무대는 충청남도 원터이다. 앞에서 근대에 들어와 일본의 농촌은 이미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자본주의의 문제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본의 경우는 식민지인 조선의 농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곳 농촌 마을에서도 자본주의는 지주제와 함께 마을농민들의 생활에 깊게 침투되어 있었다. 「고향」의 무대인 원터에는 커다란 제사공장이 지어져서 가동되고 있

7) 마지막 부분의 김기진의 대필은 이기영이 써둔 원고를 바탕으로 한 것임은 물론이다.

8) 김팔봉(1956) 『한국문단축면사』 사상계 p.202

었다. 제사공장의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밤낮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곳에도 식민지 자본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부재지주」와 「고향」의 동일점과 차이점

여기에서 고바야시 다키지의 「부재지주」와 이기영의 「고향」, 두 작품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

우선, 두 작품의 같은 점을 살펴본다.

고바야시 다키지의 「부재지주」와 이기영의 「고향」의 같은 점은 첫째, 두 작품 모두 마을농민들이 지주의 높은 소작료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작품 모두 땅 주인인 지주는 부재지주다.

고바야시 다키지의 「부재지주」의 무대는 홋카이도(北海道)의 농촌이다. 「부재지주」에서 마을농민들은 지주의 높은 소작료에 괴로워한다. 이 작품에서 높은 소작료를 낸 마을농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한다. 자신들이 농사를 짓는 데도 그들은 먹을 쌀이 없었다. 「고향」에서도 흉년이 드나 풍년이 드나 농민들의 생활은 힘들었다. 마을농민들이 힘든 이유는 역시 지주에게 내는 높은 소작료가 원인이었다.

「부재지주」와 「고향」모두 생활에 곤란해진 마을사람들은 다른 벌이를 하러 간다.

「부재지주」의 전작인 「방설림」에서 마을농민들은 아사리(朝里) 산속에 들어가서 참피나무 껍질을 벗기는 일을 2월 내내 한다. 그것을 일단락 지으면, 요이치(余市)의 청어 잡이에 가서 4월 말경 마을에 돌아온다. 어느 농민이라도 대개 그렇게 했다. 그래도 농민의 생활이 빠듯했다. 이렇게 일을 해도 그들의 생활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지주에게 내는 소작료가 너무 가혹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고향」에서도 마을농민들은 생활을 위해 일을 찾아 간다. 이 작품에서 원철이는 제사공장으로 날뎌를 팔러 간다. 하루 진중일 힘찬 노동을 하고 겨우 사오십 전의 삯전을 버는 것이었지만 벌써 보리양식이 떨어져 가는 그로서는

그나마도 큰 부조였다.

일본의 농촌에서도 한국의 농촌에서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먼 곳으로 별이를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농촌이나 한국의 농촌이나 소작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은 비슷했다. 하지만 한국농촌의 상황은 일본보다 더 심각했다. 한국농촌에서는 여자들도 힘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향」에서 마을여자들은 겨울은 어떻게든 넘겼지만 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에 걱정을 한다.

“성님은 먼 산으로 칩뿌리를 캐러 다니신다니?”

쇠득이 처가 묻는 말에 수동이네는 “어제도 봉화재로, 일삼사 절 뒤 상봉으로 쏘다녔지. 칩뿌리는 더러 있어도 산이 험해서 맘대로 다닐 수가 있어야지. 하마터면 범 바위 밑에서 떨어져 죽을 뻔 했어.”⁹⁾

「고향」에서 수동이네는 칩뿌리를 구하기 위해 먼 곳의 위험한 산을 오른다. 이렇게 한국농촌에서는 남자들뿐만이 아니고, 여자들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한 일을 해야 했다. 일단 한국의 농촌에서는 일본과 달리 남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농촌보다 한국 농촌의 상태가 훨씬 더 열악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재지주」와 「고향」에서는 마름의 성격이 같다.

두 작품 모두 마을농민들에게 마름은 지주보다 더 미움을 받는다. 「부재지주」에서 마름은 요시모토(吉本)이다. 그는 마을농민들에게 지주보다 더 미움을 받는다. 마름의 역할은 지주의 지시를 농민들에게 전하고, 또 농민들의 이야기를 지주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부재지주」에서 마름인 요시모토는 단순히 농민들의 이야기를 지주에게 전해주는 마름의 역할을 넘는다. 그는 지주와 소작농민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

「부재지주」에서 농민들은 요시모토 관리인을 몇 번이나 찾아가 소작료 감면을 탄원하는 편지를 지주에게 보낸다. 답장도 역시 관리인을 통하여 받게 된다. 그는 중간에서 양쪽을 관리한다. 그는 지주가 농민들에게 주는 돈을 가로채고, 농민들을 공짜로 일시키고 그렇게 받은 돈으로 마을에 첩까지 얻어

9) 이기영(2011) 「고향」 문학과 지성사 p.567

산다. 소작농민들은 지주보다 오히려 마름인 요시모토를 더 미워한다.

마름인 요시모토는 농민들에게 ‘뱀 요시’라고 불리고, 진드기로 인식된다. 그는 작황이 나쁜 논을 아무리 보여주고 부탁해도 결코 그대로 지주인 기시노(岸野)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또 누군가 불행이 있던 때, 지주가 소작인에게 보내오는 부의금의 일부를 가로챘다. 그리고 그는 도로와 관개수로 보수공사를 한다고 일당을 지주에게 받아 소작인을 공짜로 일시키고 그 돈을 감쪽같이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소작료 갹신을 한다고 위협해 농민들에게 농작물을 베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부재지주』의 마름인 요시모토는 지주와 소작농민 모두를 속이고 양쪽에서 이익을 챙긴다.

한편, 『고향』에서 마름은 안승학이다.

『고향』에서 안승학은 마을농민들에게 지주보다 더 미움을 받는다. 마을농민들은 안승학을 지주보다도 더 미워했다. 마을농민들이 안승학을 미워하는 이유는 쟁의 때, 교활한 안승학의 행동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름인 안승학은 마을이 수해로 흉년이 들었을 때, 소작료를 면제해 달라고 하는 마을농민들의 탄원을 차일피일하고 미루다가 거의 한 달이나 가까울 무렵에야 지주에게 비로소 회답이 왔다고 한다. 회답은 소작인들에게 터무니 없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안승학이 지주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스스로 회답을 한 것이었다. 안승학의 교활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지주인 민판서 집에서 타작관이 내려와서 워낙 수재가 심한데 동정하여 소작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잘해주자는 것을 안승학은 그렇지 않다고 그를 쫓는다. 그는 한번 그런 전례를 내주게 되면 해마다 그런 일이 생길게니 큰일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벼를 베고 순종하면 감해주고, 대항하면 한 톨도 감해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안승학은 지주의 말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한다.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 『부재지주』의 요시모토도 『고향』의 안승학도 자신들이 지주와 농민들 사이에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렇게 두 작품에서 마름의 실체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부재지주』와 『고향』두 작품 모두, 지주 쪽과 국가권력이 관계를 맺고 있다.

다키지의 『부재지주』에서 지주 기시노는 자본가 지주이다. 부재지주인 그

는 오타루에서 회사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기시노는 국가권력과 결탁되어 있었다. 쟁의가 일어났을 때, 차석경부는 조합의 무토(武藤)에게 “경찰은 과연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자본가의 주구(走狗)다. 그렇게 알아라.”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경찰간부가 자신이 지지하는 편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또 지청장(支廳長)은 “소작인이 이겨서는 안 된다.”라는 기밀지령을 관내의 유력자에게 배포한다. 지청장도 그들 편이었다. 이렇게 『부재지주』에서 지주는 경찰과 검찰로 대변되는 국가권력과 결탁되어 있다.

한편 국가권력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고향」도 마찬가지다. 마름인 안승학이 지주 쪽이라고 할 때, 지주 쪽과 국가권력의 관계는 「고향」의 첫 부분에 나온다. 호구조사를 하는 순사가 마름 안승학의 집에 찾아간다.

순사는 마름 집으로 올라갔다. 작년 가을에 새로 갈려 온 안승학은 사랑마루에 등의자를 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부채질을 슬슬 하며 매미 소리를 서늘하게 듣고 있었다.

(중략) “야, 복상 나오시오? 어서 올러오시오! 자 어서!”¹⁰⁾

이러한 대화내용을 통해 보면 마름과 순사, 두 사람의 관계는 상당히 친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방문으로 순사는 안승학을 통해서 김희준이 일전에 도쿄(東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 작품에서 순사는 박(朴)씨로 조선인이다. 「고향」에서는 일본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재지주』와 「고향」 모두 지주 쪽과 국가권력이 관계하고 있다. 단지 자본주의가 발달한 『부재지주』에서보다 「고향」의 경우는 그 관계가 아직 느슨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농촌보다 일본의 농촌이 실질적인 식민지적 자본주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넷째, 『부재지주』와 「고향」 두 작품 모두 마을농민들이 쟁의에서 승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부재지주』에서 마을농민들은 일을 하나씩 하나씩 진전시킨다. 농민들의 쟁의는 일이 순서대로 발전되면서 올바른 과정을 밟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전개된다. 처음에 농민들의 행동은 마름을 통한 소작료감면이라는 소극적인 탄원으

10) 같은 책, pp.11-12

로 시작된다. 하지만 나중에는 직접 지주가 사는 오타루에까지 원정을 가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발전한다. 지주의 배려에 기대하는 탄원에서 쟁의 목적을 스스로 쟁취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조합과의 연대가 결정적이었다. 농민들은 이러한 쟁의과정을 통해 노동자에게 배우면서 그들의 의식이 성장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한편 「고향」에서도 마을사람들의 쟁의는 승리한다.

여기에서 「고향」의 마을농민들의 쟁의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고향」에서 수해로 흉년이 들었을 때, 마을농민들은 토의한 결과 우선 마름인 안승학에게 올해 소작료를 면제해 달라고 교섭한다. 안승학은 차일피일하고 미루다가 거의 한 달이나 가까울 무렵에야 비로소 지주에게 회답이 왔다고 한다. 소작인들에게 터무니없는 내용이였다.

이에 소작인들은 다시 모여 의논한다. 그들은 마름인 안승학이 지주에게 편지도 하지 않고 제 맘대로 대답한 줄 짐작한다. 그래서 그들은 마름을 중간에 세울 것 없이 지주에게 직접 답판을 하기로 한다. 마을농민들은 비밀리에 진정서를 꾸며 가지고 몇몇 사람이 가만히 서울로 올라갔다. 윈터 작인들 중에서 서울로 교섭을 하러 올라갔던 사람들은 지주를 만나보고 내려온다. 지주의 말은 모든 것을 마름인 안승학에게 맡겼으니 그와 잘 타협해서 좋도록 하라는 것이였다.

그래서 소작인들은 다시 안승학을 상대로 담판한다. 그동안 민판서 집에서 타작관이 내려와서 워낙 수해가 심한데 동정하여 웬만하면 작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잘해주자는 것을 안승학은 그렇지 않다고 그를 쫓는다. 이렇게 안승학은 지주 집 사람까지 감해주자는 것을 고집 부린다.

그 사이 먹을 것이 떨어진 마을농민들은 벼를 베는 것을 생각한다. 그들에게 오랫동안 붙어 있던, 눈앞만 생각하고 장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농노의 근성이 나온 것이다. 그들은 벼를 베지 말자고 맹서한 것도 잊어버리고 안승학이 피는 대로 벼를 베려고 한다. 이 때 마을농민들은 제사공장에 다니는 갑숙이(옥희)와 방개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게 된다. 갑숙이와 방개가 준 돈은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 없게 공평하게 나눈다. 그러나 그들이 준 돈은 겨우 삼사일의 양식밖에 되지 않고, 안승학은 조금도 양보하고 있지 않아 또다시 곤경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가정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안승학은 조건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마을사람들은 쟁의에 성공한다. 마을농민들은 쟁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믿음으로써 쟁의에 승리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향』에서 쟁의의 승리는 농민의 힘에 의해 쟁취된 것이 아니고, 안승학의 개인적인 가족 문제를 묻어둔다는 서약을 대가로 얻어진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들은 정정당당한 방법이 아니고 안승학 개인의 가정사를 위협하여 쟁의에 승리하였다. 작품의 결말이 중도반단으로 되어 버렸다. 이것은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 대필로 쓰였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소작쟁의는 합법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대의 농민사회에 있어서 소작쟁의의 수단이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쟁취해 낼 수 있는 운동수단의 하나였다. 고을 소작료가 초래하는 폐해와 모순에 대해서 소작인들이 항의할 수 있는 권리는 적어도 1930년대 초반까지에 걸쳐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었던 것이다.¹¹⁾

당시 소작쟁의의 수단이 합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이러한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마름인 안승학의 개인적인 집안일을 가지고 교섭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이것은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쓴 김기진이 작품을 소작쟁의라는 압도적인 내용보다, 안승학 집안일로 쉽게 마무리하는 편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검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앞의 대필문제에서 이기영은 “원터마을 농민들의 소작쟁의를 지원하는 제사공장 노동자들의 제사공장 파업 장면은 적지 않게 삭제 당하였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애초에 『고향』에는 ‘농민들의 소작쟁의를 지원하는 제사공장 노동자의 파업 장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부재지주』에서 오타루에 원정 간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타루의 기시노 공장에서 파업을 일으킨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고향』에서도 노농동맹이 맺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초고에 있던 내용이 검열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향』의 마지막 부분은 안승학의 가정 문제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고향』에서도 희망이 있다.

11) 한형구(1989) 『『고향』의 문학사적 의미망』 권영민 편 『월북문인연구』 문학사상사 p.75

『고향』에서 마을농민들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쟁의를 이끌었던 김희준은 “우리가 정정당당한 수단으로 끝까지 해보지 못하고 개인의 가정을 가지고 위협한다는 것은 도리어 창피한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반드시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나아갈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런 힘이 없으니까 불가불 다소 비열한 수단을 쓸 뿐이지요. 잘못하다가 시일을 앞으로 더 오래 끈다면 도리어 우리들의 일이 와해되어서 우리의 약점이 공개되고 말겠으니 먼저 이것을 방비해야 하지 않겠어요?”¹²⁾

그는 쟁의를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나아갈 힘을 길러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튼튼한 실력이 아니고 한 개의 위협 재료를 가지고 굴복 받았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덧붙인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고, 일시적인 승리인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앞으로 마을농민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를 것이다. 『고향』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다.

한편, 『부재지주』와 『고향』두 작품의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부재지주』와 『고향』은 농민과 노동자의 관계가 다르다. 『부재지주』의 마을농민들에게는 노동조합의 도움이 있었다. 마을농민들은 노동조합의 지도를 받아 쟁의에 승리한다. 이 작품에서 노동조합과의 연대가 없었으면 소작쟁의는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재지주』에서 농민들은 오타루 노동조합의 조언으로 지주가 있는 오타루에 온다. 그리고 농민과 노동자는 노농쟁의 공동위원회를 조직하여 대책을 짠다. 그리고 여기에 오타루 노동자들로부터 기부가 들어온다. 오타루의 노동자들은 일을 쉬면서까지 또 경찰에 끌려가서 맞으면서도 쟁의를 응원해 준다.

또한 오타루 육지 산업노동자회의에서는 소작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지주인 기시노에게 빠른 해결을 재촉한다. 그들은 기시노가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을 때는 기시노 회사의 하역을 거부하고 기시노 회사 상품의 불매운동

12) 이기영(2011) 『고향』 문학과 지성사 pp.760-761

을 한다는 결의문을 기시노에게 보낸다. 이 결의에 기시노의 공장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부재지주』에서 농민들은 오타루 노동자의 전적인 협력에 힘입어 쟁의에 승리한다. 『부재지주』는 앞에서 말한, “노동자의 지도에 의해 농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해 간다.”는 농민문학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재지주』에서는 농민조합이 있었지만, 『고향』에서는 농민조합이 없다. 일본의 경우는 농민조합이 조직되어 있었다. 일농 홋카이도 연합회(日農北海道連合會)는 1925년 창립되었을 때는 5지부 600명의 작은 조합에 불과했지만, 1926년에는 이시카리(石狩)를 중심으로 홋카이도의 다른 농경지대로 급속히 확대되어 43지부 약 3000명의 농민을 조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부재지주』에서도 농민조합이 있었다.

하지만 『고향』에서는 농민조합이 없었다. 즉 『고향』의 경우, 『부재지주』보다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이 늦다고 할 수 있다. 『고향』에서도 마을사람들의 소작료 탕감 쟁의는 성공한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작품에서는 일단 농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연대가 없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갑숙이와 방개가 개인적으로 마을농민들을 도울 뿐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난 농민운동의 양상은 1924년 4월 조선노동총연맹이 결성되어 노동자, 농민의 계급적 연대가 이루어졌다. 이 단체는 1927년에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분리 개편되어 발전한다. 『고향』의 작품배경이 1920년대 중반이어서, 월터 마을농민들은 아직 농민조합이 성립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고향』에서는 소작쟁의로 발전하는 농민들의 치열한 준비과정이 부족하다. 마을에 농민조합이 없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마을농민들은 정정당당한 수단이 아닌, 개인의 가정사로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쟁의에 승리한다. 이것은 『고향』에서 농민의 소작쟁의가 초기단계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 다키지의 『부재지주』에서는 농민집단이 쟁의를 이끌었지만, 『고향』에서는 개인이 소작쟁의를 이끌어가는 점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부재지주』와 『고향』은 싸움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부재지주』에서 소작농민들은 부재지주와 싸우지만, 『고향』에서는 부재지주가 아니고 마름인 안승학과 대결한다. 『부재지주』에서 소작농민들은 부재

지주와 싸운다. 이 작품에서 소작농민들은 오타루에 원정을 가서 부재지주인 기시노 농장의 주인인 기시노와 싸운다. 이 대결은 실제로는 기시노를 지지하는 지배층과 농민들을 지지하는 노동자층과의 대결이었다. 이 작품에서는 지주, 자본가와 농민, 노동자가 대립한다.

하지만, 『고향』에서 소작농민들은 지주가 아니고, 마름인 안승학과 대립한다. 이 작품에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작농민들은 마름인 안승학에게 소작료 탕감을 탄원한다. 작품이 지주와 소작인이 아니고, 같은 계급인 마름과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의 상대가 지주가 아니고 마름이 되어 있는 것은 자본주의 발달이 일본농촌보다 늦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농촌도 결국 나중에는 마름이 아니고 지주와 갈등하게 될 것이다.

셋째, 『부재지주』와 『고향』은 지주의 성격이 다르다.

다키지는 앞의 아메미야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재지주』에서는 무엇보다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상태에 있는 농촌’을 그렸다고 말한다. 『부재지주』의 지주는 지주이자 자본가이기도 했다. 『부재지주』의 지주인 기시노는 오타루에서 회사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농장의 부재지주인 기시노는 자본가 지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향』의 지주는 서울에 있는 판서 신분이다. 『고향』의 지주는 농촌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는 단지 서울에 사는 부재지주일 뿐이다. 『부재지주』에서는 만나주지도 않았지만, 『고향』의 지주는 소작인들이 서울에 올라갔을 때 소작인을 잘 만나주기도 하고, 마을농민들의 탄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한다. 『부재지주』의 지주처럼 자본가 지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향』에서의 지주도 자본가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가을에 쌀을 매점매석해서 곡가가 오를 때 판다. 해마다 그렇지만 곡가는 연부년 떨어저만 가는 중에도 가을에는 여지없이 폭락한다. 연전과 비하면 두 곱절 이상이 떨어졌다. 곡가가 이렇게 되니 지주들은 추수한 벼를 잔뜩 쟁여두고 곡가가 오르기만 기다린다. 그러나 중농과 빈농들은 추수하는 즉시로 모든 부채와 추렴새와 일용품을 사기 위해서 곡식을 당장에 팔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곡식을 다 내고 나서 만주 좁쌀을 사먹을 무렵에 곡가는 그제야 오르기 시작한다. 지주들은 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창고를 비우는

것이다. 그들은 그 이듬해 여름까지 장기간을 두고 그런 기회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고향」의 제주도 곧 「부재지구」의 지구처럼 회사와 공장을 운영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농촌은 이미 식민지적 자본주의가 횡행하고 있고, 한국의 농촌도 곧 이러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두 작품의 차이점으로 「고향」에는 두레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향」에는 「부재지구」에 없는 두레가 있었다. 「고향」에서 두레의 의미는 중요하다. 두레는 마을농민들의 풍물행사이고 농민들의 협동심을 키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쟁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레의 영향으로 마을사람들의 친목이 두터워져 쟁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고향」의 원터 마을에는 2년 연속으로 두레가 난다. 두레가 난 뒤로 마을사람들의 기분은 통일되었다. 백룡이 모친과 쇠득이 모친도 두레 바람에 화해하게 되었고, 인동이와 막동이 사이의 매듭도 풀어졌다. 결국 원터의 두레는 좋은 성적으로 끝을 맺는다. 그들은 십여 일 동안을 두고 두레 논을 맺는데, 풍물 값을 제하고서도 이십 여원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2년 연속 두레를 낸 원터 마을 사람들은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게 된다. 「고향」에서는 변화된 마을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원터의 젊은 사람들은 다른 동네의 두레꾼들과 달랐다. 다른 마을의 두레꾼들은 술을 마구 먹었지만 원터의 젊은 사람들은 차차 조상 전래의 구습을 버리게 되었다. 그들은 희준이의 지도를 받아서 첫째 술을 과음하는 버릇을 고치게 되었다. 술과 기타 음식을 일정하게 제한을 해서 먹고 매사에 서로 불공평한 일이 없게 하였다.¹³⁾

이렇게 마을사람들은 두레를 통하여 나쁜 버릇을 버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두레를 내서 이웃 간에 친목이 두터워진 그들은 서로에게 신용을 보였다. 두레는 농민들의 연대를 만들고, 이러한 연대를 바탕으로 농민들의 마음이 모아진다. 이것이 소작쟁의로 발전한다. 두레를 통하여 변화

13) 같은 책, p.607

된 마을사람들의 의식은 쟁의로 발전하는 힘이 된다.

두레는 소작인들에게 공동체의식을 불어넣어 그들이 서로 협동하고 단결하게 하는 하나의 매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농민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에게 친숙한 두레를 통해 비로소 느슨하나마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두레는 농민조직화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소작쟁의라는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기도 했다.¹⁴⁾

두렛날에 김희준은 마을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연설한다.

옷과 밥과 집을 만드는 사람-다시 말하면 노동자나 농민은 결코 천한 인간이 아니다. 도리어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드는 훌륭한 역군들이요 또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¹⁵⁾

김희준은 두레를 통해서 마을사람들에게 노동자와 농민이 귀한 존재이고, 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설한다. 쟁의의 승리에는 두레의 성공이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레를 성공시킨 힘으로 마을사람들은 쟁의로 나아갈 수 있었다. 「고향」에서 농민조합을 대신하는 것이 두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이러한 두레 이전에 농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야학이 있었다. 요컨대 「고향」에서 마을사람들의 의식은 야학에서 두레를 걸쳐서, 소작쟁의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마을사람들은 쟁의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이상, 고바야시 다키지의 「부재지주」와 이기영의 「고향」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살펴본 것과 같이 「부재지주」와 「고향」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14) 류양선 (1994) 『한국농민문학연구』 서광 p.254

15) 이기영 (2011) 「고향」 문학과 지성사 p.447

고바야시 다키지의 「부재지주」와 이기영의 「고향」의 같은 점은 두 작품 모두 마을농민들이 지주의 높은 소작료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점, 땅 주인인 지주가 부재지주라는 점, 마름의 성격이 같다는 점, 지주 쪽과 국가권력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작품 모두 마을농민들이 쟁의에서 승리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부재지주」와 「고향」두 작품의 차이점으로는 「부재지주」와 「고향」은 농민과 노동자의 관계가 다르다는 점, 싸움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 지주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고향」에는 「부재지주」에 없는 두레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재지주」보다 「고향」은 자본주의의 발전이 늦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부재지주」에서 마을농민들은 노농동맹을 맺어 쟁의에 승리하지만, 「고향」에서는 안승학의 가정사를 위협해 승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향」에도 희망이 있다. 이 작품에서 마을농민들은 쟁의의 승리가 일시적인 승리인 것을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마을농민들은 일시적인 승리가 아닌 진정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고향」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다.

<參考文獻>

- 이기영(2011) 「고향」 문학과 지성사 pp.1-802
 이상경(1994) 『이기영 시대와 문학』 풀빛 p.94
 안함광(1933) 「최근 문단의 동향」 『조선중앙일보』
 김팔봉(1956) 『한국문단측면사』 사상계 p.202
 류양선(1994) 『한국농민문학연구』 서광 p.254
 한형구(1989) 「『고향』의 문학사적 의미망」 권영민 편, 『월북문인연구』 문학사상사 p.75
 황봉모(2017)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의 『부재지주(不在地主)』 연구」 『일본연구』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pp.129-150
 小林多喜二(1993) 「不在地主」 『小林多喜二全集 第二卷』 新日本出版社 pp.365-502
 黒島傳治(2010) 「農民文学の発展」 『黒島傳治全集 第四卷』 勉誠出版 pp.143-144

접 수 일: 2020년 07월 08일

심사완료: 2020년 07월 24일

게재결정: 2020년 07월 30일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akiji Kobayashi's "absent landlord"
and Lee Ki-young's "hometown"**

This article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ural novel "absent landlord" of Takiji Kobayashi and the rural novel "hometown" of Lee Ki-young.

As we have seen, "absent landlord" and "hometown" ha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 similarity between Takiji Kobayashi's "absent landlord" and Lee Ki-young's "hometown" is that village farmers are bothered by the high tenant fees of landlords, that landlords are absent landlords, that the character of middle manager are the same, that the landlord has a relationship the state power, and that the villagers win the dispute.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between "absent landlord" and "hometown"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farmers and workers is different, the object of the fight is different, character of the landowner is different, and the "hometown" has a Dure.

In conclusio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s slower in "hometown" than in "absent landlord". This is because village farmers in "absent landlord" win a dispute by establishing a labor-management alliance and village farmers in "Hometown" win by threatening Ahn Seung-hak's family history. However, there is hope in "hometown". This is because villagers in "hometown" recognize that the triumph of a dispute is a temporary victory. That is why you can have hope in "hometown".